

보도시점 2025. 6. 29.(일) 11:00
< 6.30.(월) 조간 >

배포 2025. 6. 27.(금)

첨단 소부장 투자, 역대 최고치 경신... AI반도체·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도

- 소재부품장비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183개社 8,501억 원 투자유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올해 ‘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’(‘25년 237.5억원)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총 8,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. 이는 지난해에 비해 653억 증가한 수치로, 역대 최고 투자 금액을 기록했다.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0.2억원 증가한 46.5억원으로 집계됐다.

* 총투자유치 금액 : (‘23년) 3,985억원 → (‘24년) 7,848억원 → (‘25년) 8,501억 원

* 기업당 평균 투자유치 금액 : (‘23년) 24.8억 원 → (‘24년) 36.3억 원 → (‘25년) 46.5억 원

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,602억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 뒤이어 ▲디지털 헬스케어 627억원(13개 기업) ▲로봇·자동화 기계 441억원(12개 기업) ▲차세대 전지 분야 433억원(12개 기업)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정부의 첨단 소부장산업 육성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.

이번 투자유치의 대표사례로 AI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(Openedges Technology)는 약 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. 이 회사는 동 자금을 활용해 ‘고속·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’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. 이번 투자는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, AI반도체 기술 자립과 글로벌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 또 다른 사례로 전기차 소부장 기업 이티에스(ETS)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제조 공정 핵심 기술인 전해액 주입 장비를 국산화하며, 약 1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. 해당 기술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“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민간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”이라며, “투자에 동참해 주신 기업과 기관들께 감사드린다. 정부도 민간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4920)
		담당자	사무관	박한기 (044-203-4927)

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소부장 산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, 시장수요에 대한 성과 확산을 위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R&D 사업화 촉진
- (전문기관) KEIT(R&D), KITIA(투자)
- 투자유치현황

< 투자연계형 (소재부품기술개발, 자유공모형) 투자유치 현황 >

내용	'21	'22	'23	'24	'25
투자유치 기업수(개, A)	83	81	161	216	183
민간투자금(억원, B)	1,473	1,498	3,985	7,848	8,501
평균 민간투자금 (B/A)	17.7	18.5	24.8	36.3	46.5

□ 주요 지원 방안

- (투자유치 설명회)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IR 자료를 보유한 기업이 실제 투자기관 앞에서 IR 발표
- (벤처캐피탈 매칭행사)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업 현황(핵심 기술, 투자단계 등)에 부합하는 투자기관과 1:1 매칭 및 협상 지원
- (IR 컨설팅)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략 수립, IR자료 작성 등 컨설팅 지원

□ 주요 성과

- (기업 성장사다리 역할) 기술력은 있으나,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민간투자 연계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
 - '00년부터 '24년까지 총 1,073개 사에 총 4조 4,786억 원 매칭 (정부 R&D 2조 6,867억 원, 민간투자 1조 7,919억 원)
- (IPO 성공) 833개 비상장 선정기업 중 135개사(16%)가 IPO 성공 ('00~'24년), 일반기업 대비 높은 상장비율 및 짧은 상장기간 소요
 - * IPO 성공률은 일반기업 3.6%의 4.5배이며, 소요기간은 일반기업 대비 3.2년 단축(13년 소요)